

안녕하십니까 7대 지부장 조보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오늘은 한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창립 32주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님,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동환 본부장님, 서울시의회 권수정 정의당 의원님, 북서지구협의회 나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연대단위 대표자 동지분들 고맙습니다. 또한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해주시는 선배위원장님들 고맙습니다.

특히 바쁜일 내려놓고 함께 해주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87년 8월 29일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서울상공회의소노동조합”으로 출범한 이후 2006년 산별 노조로 조직을 변경해 현재까지 민주노조의 정신과 전통을 잊지 않고 계승,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상의노조는 사용자단체인 상공회의소에서 지난 32년간 고용안정과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의 땀과 노력의 성취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만 다가올 미래가 현재보다 더 밝아지기를 희망하며 걱정과 당부 말씀을 나누고자합니다.

조합원이나 다른 노동운동 관계자를 만나다 보면 오늘날 노동조합이 처한 상황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점차 노동조합에 무관심이 커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미래가 어떨겠습니까?

누구나 “내가 안하면 누군가 하겠지”, “남이 먼저 하면 다음에 하겠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나 자신과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함께하는 조합원이 없다면 노동조합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지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해줄 동료가, 노동조합이 없이 홀로 맞서야 할 상황이 어떠할지 미리 상상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자기희생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노동자인 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옆의 동료 그리고 노동조합을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신이 있게 행동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출범한 7대 집행부는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냉소적인 시각과 전반적인 무관심을 탈피하기 위해 ‘일상이 되는 노조’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조합원과 소통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참여할 때 조직문화, 노사문화, 올바른 노동조합의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조합원 여러분!

2019 임금교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교섭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노동자 개개인의 일상이 되는 상의 노조를 만들어 나가자는 약속을 하면서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장 조 보 석